

“한전공대 설립 정부·한전·정치권 힘모아야”

지원위·지역 상의 “지역균형발전 위해 추진” 성명서 에너지산업 이끌어갈 특화대학...연내 법인허가 예정

국가 미래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한전공대 설립에 전국각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전력이 최근 교육과학부에 법인 설립을 신청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대 목소리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지역정치권이 분명한 대응을 나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 범시민 지원위원회는 6일 한전공대 설립은 국가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등 광주·전남지역 5개 상공회의소도 이날 국가차원의 에너지 분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한전공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성

명서를 냈다.

성명서에서 지원위는 “한전공대는 2030년까지 약 3경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계 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을 연구하고 이끌어갈 에너지 특화대학”이라며 “호남만의 대학이 아니고 에너지 메카의 핵심 축이자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핵심 연구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전공대 설립을 반대하는 법안(한전전력공사법,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보수 정치권 일각에서의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지원위는 “포항공대와 울산과기원도 설립 당시 지방대학 신설에 대한 반대 논란

을 극복하고 산학연 대학 설립으로 지역혁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한전공대를 반대하는 것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공대의 성공적 설립을 적극 지지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며 “광주·전남뿐 아니라 전북까지 호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원위는 한전공대가 차질 없이 설립되고 개교되도록 3개 항을 채택해 그 이행을 정부, 한전, 정치권 등에 촉구했다.

채택된 3개항은 ▲정부는 한전공대 기본계획에 따라 한전공대가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한전은 일부 반대 의견에 동요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하고 ▲정치권은 여야가 협력해 에너지산업 분야 인재양성의 요람인 한전공대가 정상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원위는 광주·전남지역 대학 총장, 도의원, 상공회의소 회장, 저명인사, 향우회장, 광주를 비롯한 전남 22개 시·군 지역의 사회단체장 등을 위촉해 지난달 25일 출범했다. 총괄지원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 전북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지역 5개 상공회의소는 성명서에서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지역경제발전의 구심체로서 지역 상공인의 화합과 광주·전남의 밝은 내일을 위한 청사진을 제공하는 지역 최고의 경제단체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전력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 한전공대(가칭) 법인 설립을 신청했으며, 교육부는 연말 내 법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무라카미 하루키 이번에도 노벨문학상 거론 다와다 요코 등 일본인 작가 후보에...올해는 2명 수상

노벨상 계절이 돌아오면서 올해 어떤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할지 관심이 높다.

지난해는 심사위원 가운데 한 명이 ‘미투’ 파문에 휩싸이면서 수상자를 발표하지 않았다. 오는 10일(한국시간 오후 8시) 2명의 수상자 선정이 예고된 가운데, 후보로 일본인 작가 2명이 거론되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고토통신에 따르면 영국 배팅엄체 ‘나이스오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유력 후보군에 4일 현재 무라카미 하루키와 다와다 요코 등 일본 작가 2명의 이름이 올라 있다. ‘노르웨이 숲’으로 유명한 무라카미 하루키는 공동 3위, 소설가이자 시인인 다와다 요코는 공동 16위를 기록하고 있다.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는 무라카미 하루키는 일본 국내 뿐 아니라 영미권과 유럽에서도 두터운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다. 역대 일본인 문학상 수상자로는 ‘설국’의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소설가이자 사회운동가인 오에 겐자부로가 있다. 나이스오즈는 가장 유력한 노벨상 후보로 캐나다 시인 앤 카슨을 꼽았다. 다

음으로 프랑스 소설가 마르리트 콩테, 중국 소설가 잔쉴리가 삼파전을 벌이고 있다고 예상했다. 올해는 여성 작가 다수가 가능권에도 포함돼 있어 여성 작가의 수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시인 앤 카슨은 고전을 모티브로 독창적인 작품을 발표해 명성을 얻었다. 2001년 여성 최초 T. S. 엘리엇상을 수상했다. 카리브를 대표하는 여성 작가 마르리트 콩테는 제국주의와 세계와의 관계를 독특한 관점으로 해석한 작품을 선보였다. 지난해 대안 노벨상으로 불리는 ‘뉴 아카데미 문학상’을 수상해 이름을 알렸다. 반면 ‘중국의 카프카’로 불리는 잔쉴리는 국내에는 작품이 소개되지 않았지만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해 스캔들로 인해 잠시 중단했던 노벨문학상 수상자 선정을 올해 재개하면서 2018년과 2019년 수상자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두 명의 수상자가 어떤 장르일지 그리고 남성, 여성 작가로 나날지 여부 등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장흥서 오늘 개막...13일간

‘2019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가 7일(오늘) 오후 장흥 안양면 박람회장 주무대에서 ‘건강한 삶의 길을 보여드립니다’란 주제로 개막, 13일간 펼쳐진다.

이날 개막식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정중순 장흥군수, 박맹수 원광대 총장, 마재주 통합의학박람회 추진위원장, 도의원과 군의원, 광주·전남 병원장,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주재전시관, 통합의학관, 건강증진관, 대체보완의학관, 의료산업관, 건강음식관, 6개 전시체험관을 운영한다. 또 전국 대학병원, 대학, 협회·단체 등 120여 기관이 참여해 진료와 체험을 펼친다.

스크린 스파, 명상·심리 치료, 통합의학 북카페, 인체모형존, 약초동산, 국화향연장, 표고버섯 율타리, 주무대 문화공연, 트릭아트 포토존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과 볼거리도 마련됐다. 모든 검사와 체험은 무료다.

통합의학을 새롭게 재정의하고 블루 바이오(Blue Bio)산업과 연계·발전 방안을 모색할 학술대회, 건강강좌,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해 국민에게 통합의학을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약 비임상연구시설이 옛 장흥교도서 부지에 사업비 95억원을 들여 올 하반기에 개원을 앞두고 있어 기존 통합의학시설인 통합의료한방병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천연자원연구원, 버섯자원연구원 등과 함께 장흥 일대가 통합의학 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세계호남향우회,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세계호남향우회 총연합회 향우회원 330여 명이 '2019 고향방문 행사' 중 지난 5일 광주를 찾아 디자인비엔날레를 관람하고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 일대 에너지융복합단지 지정 신청

산자부, 심의 후 다음달 결정

광주·전남이 빛가람혁신도시 일대를 ‘에너지신산업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달 25일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공모에 신청서를 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지역의 대규모 에너지 발전시설과 에너지 관련 기업·기관·연구소 등을 하나로 묶어 협력을 촉진하고 정부가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빛가람혁신도시 에너지밸리 일대를 중심으로 광주 첨단지구와 장성 일대를 포함한 ‘광주·전남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정부로부터 ▲기반시설 조성 ▲에너지특화기업(에너지매출 50%) 지원 ▲연구기관 비용 지원 ▲전문인력양성비용 지원 등을 받는다.

해당 융복합단지에서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특화된 기업을 에너지특화하는 사업에 특혜를 부여하며, 연구개발 지원·생산 제품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을 주고 대학·연구소·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연구

개발·인력양성 등의 비용 제공도 가능하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전남도는 한국전력,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기업과 연계, 빛가람혁신도시 일대를 핵심(코어)지구로 구분하고 영광 대마산단과 동함평산단 일대를 해상풍력, e모빌리티 산업 등을 주력으로 하는 연계지구로 나눠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광주 도시첨단산단, 장성 첨단 3지구, 나노산단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모 신청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초까지 융복합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귀농 지원 33억4000만원 국비 확보 도시민 귀어·귀촌 유치...집 조성 사업 등 정착 일조

전남도가 농어촌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2020년 귀농어·귀촌을 위해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등 33억4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해 투입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은 농촌 이주 희망 도시민의 임시 주거공간 마련과 농촌 정보 제공 프로그램 운영 등에 29억2000만원이 투입된다. 현장에서 귀농·귀촌 유지활동과 함께 정착 지원의 기본이 되는 사업이다.

귀농인 집 조성사업은 귀농어·귀촌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빈 집 리모델링 및 이동식 조립주택을 설치해 제공한다. 지금까지 114개동을 조성했다. 2020년 14개동에 4억2000만원이 지원된다.

최근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가속화로 늘 것으로 예상되는 귀농어·귀촌인의 유치 확대를 노린 고령화와 인력 감소를 해소하고 농업·농

촌의 새로운 활력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또 신규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용자사업에 전년보다 249억원을 증액한 전국 최고의 816억원을 배정받아 신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농업 정착에 일조하게 됐다.

유현호 전남도 인구정책조정관은 “전남 농업의 가능성과 농촌의 매력을 보고 매년 한 개 군 규모인 4만여 명의 귀농어·귀촌인 찾아오고 있다”며 “귀농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좋은 청정 전남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적인 귀농어·귀촌 감소(△1.9%)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은 유일하게 귀농·귀촌·귀어·귀구 모두 증가(1.7%)했으며, 특히 30대 이하 젊은 귀농·귀촌자가 늘어난 3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투자

7억원, 2명

- 대상 - 급매물 · 경매물건
- 기간 - 2년 이내
- 수익 - 연 24% 이상 가능
- 법적보장. 010-3605-50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7년

光州日報

. 光州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

자산매각 입찰 공고

- 매각대상 및 매각조건**
가. 매각대상: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산130(야야) 4,859㎡
나. 매각조건
①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의 사실상 법률상 현존상태(소수, 강제집행, 제한물권, 유치권, 임대차, 민원 등)를 말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현존상태 그대로 인수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② 묘 47는 1년 이내로 매도인이 굴이키로 한다.
- 입찰일시 및 최저매각금액**
- 입찰서류 제출장소**: 여수한우(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496-26(062-381-3456))
- 현장실사**: 현장실사 전 현장에 대한 사전확인요청을 득 하여 함.
- 입찰방법**: 일반경쟁 입찰(단, 1명이 입찰에 참여하여도 유효함)
-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의 10%이상, 인수금액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입찰이 무효처리 됨.
나. 납부방법: 입찰당일 자기앞수표로 밀봉하여 납부.
다. 최고매입가격을 제시한 업체(자).
- 계약체결 및 인수대금의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계약금(10%이상)으로, 중도금은 매각대금의 50%이며 매각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잔금은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함.
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 입찰참여자 제출서류**
- 유의사항**
가. 입찰과 관련된 모든 제출서류는 위 제출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 일정 및 내용은 매도인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매각과 관련한 일체의 절차는 전적으로 매도인의 고유 권한으로 본 입찰공고의 진행절차에 대하여 매도인 이외의 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 매도인의 내부 사정에 의하여 매각을 위한 입찰 절차가 중단, 철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입찰중단 또는 철회 시에는 입찰 보증금은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 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금성법씨문중(010-3074-955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7일
금성법씨 문중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

2019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장학생 모집

재단법인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는 영광군민 및 재광영광군향우회원 자녀 중에서 애학성이 투철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특기 및 학업 성적 등 미래의 비전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학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
◆ 지원자격
- 영광군민 및 재광 영광군향우회 회원 자녀 중에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2019년 10월 1일 현재 영광군이나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부모를 둔 학생
◆ 선발인원
- 총 20명으로 하되, 영광군민 자녀 12명, 재광영광군향우회 자녀 8명(예정)
- 선발방법 및 구비서류**
◆ 선발방법
- 영광군민의 자녀 중 영광군수가 추천한 학생 (영광군 추천 양식에 의함)
- 재광영광군향우회 자녀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 학생
◆ 구비서류
①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 추천서 1부
② 공적 조서해당 분야 자료 사본 첨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재학증명서 1부 ⑤ 성적증명서 1부
⑥ 통장 사본(본인 명의) ⑦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⑧ 글쓰기 작품 1점 : 수필, 자서전, 생활민중학생에 선발된다면 등 형식,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제출
* 영광군청 추천 : 영광군 추천 양식에 의함(위 구비 서류는 공통)
* 구비서류양식 : 재단법인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카페 <https://cafe.daum.net/ihmygg> 참고
- 서류접수 및 선발예정**
◆ 서류 접수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 및 문의처 : (우 61903) 광주광역시 서구 유림로 100 (동천동 해천빌딩 7층)
- 전화 : (062) 522-8422/사무국장 김상수 010-4622-2397 (0)메일 kss237@hanmail.net
◆ 선발 일정
- 접수 기간 : 2019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수) 17:00까지
- 최종 선발 : 2019년 12월 초순 발표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카페 및 개별 통보)
- 장학금 지급 및 장학서 수여식
2019년 12월, 재광영광군향우회 송년의 날(12월말) 예정
-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됨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영광군민의 자녀는 영광군청으로 제출하고, 재광영광군향우회 자녀는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사무국 사무실로 제출